서울 중랑구 면목3·8동 모아타운 대상지. 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면목3·8동이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.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한 6곳 중 면목 3·8동 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.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㎡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. 이번에 선정된 면목3·8동 453-1 일대(8만3057㎡)는 노후 단독·다가구주택이 면적의 82.7%를 차지하고,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. 사업 대상지에는 모아타운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체계 정합성을 감안한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.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%를 자치구에 지원할 방침이다.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. 다만 면목3·8동의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(구역 간 경계)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.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는 면목3·8동을 비롯해 서초구 양재2동(2곳), 강남구 개포2동, 마포구 성산1동, 양천구 목2동 등 6곳이 신청했다. 이 가운데 양재2동과 개포2동은 반대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해 탈락했다. 성산1동과 목2동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됐다. 서울시는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각 지역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·고시할 계획이다.